

호주서 550억대 스마트팜 수주 성사 혁신밸리 모델로 글로벌 진출 박차

농식품부,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한국형 혁신밸리 조성 MOU 체결 시범 온실 준공·협력 기반 강화 바이어 간담회·판촉행사 등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주 호주에서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워크'를 개최해, 스마트팜 구축 협력 업무협약(MOU) 및 수주 계약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5~6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에서 열렸다.

양측은 총 3건의 MOU를 맺었다. 현지에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MOU 2건과 민간기업 간 2ha 규모의 스마트팜을 구축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 1건이다. 행사에서는 또 3900만 달러(10ha)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 계약이 성사됐다.

협력워크 행사 첫날에는 올해 9월 준공된 한국 시범 온실에서 호주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K-스마트팜의 기술력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이어 3번째로 준공된 호주 시범 온실은 오세아니아 권역의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진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시범 온실 조성에 참여한 이수화학은 시범 온실 준공 경험과 협력워크를 기반으로, 2ha 부지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 조만간 후속 수주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 날에는 퀸즐랜드대에서 양국



지난 6일 호주 퀸즐랜드대에서 열린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포럼'의 모습. /농식품부

간 스마트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퀸즐랜드대 관계자 등은 올해 3월 방한해 농식품부와 면담 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 도입과 관련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협력 포럼에는 드보라 테리 퀸즐랜드대 총장이 직접 참석했다. 퀸즐랜드대는 한국 농업기술진흥원과 호주 내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그린플러스와도 혁신밸리 조성 협력·딸기 스마트팜 구축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개정 체결했다. 지난 9월 호주 시장에서 1900만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그린플러스는 이번 협력 워크를 통해 푸어그린팜과 추가로 3900만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

농식품부는 호주시장 내 K-푸드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수입을 독려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 간담회 및 판촉행사도 진행했다. 호주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새로운 맛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 K-푸드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이후 호주를 오세아니아 진출의 교두보로 보고, 바이어 발굴 및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바이어 소감도 소개했다. 이 바이어는 "현지에서 김치·라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향후 대형 유통매장 진출을 통해 호주의 K-푸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직접 호주에 와서 보니 전통적으로 노지 농업을 해오던 호주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신규 수요와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2개사 선정

해수부, 2027년까지 3000억 규모 조성

해양수산부가 올해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에 누리종합개발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한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운영해 왔다. 올해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지난 5월, 9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8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7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은 지난 10월28일~11월16일 현대화 펀드 제3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했고, 연안해운선사 2곳이 지원했다.

이후 지난 3일 현대화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한 결과, 누리종합개발, 대방해운산업개발 등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60%의 건조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



세종 해수부 청사. /메트로

사는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가 위축된 연안선사가 신조선을 건조하는데, 현대화 펀드 지원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연안 교통 혁신대책을 통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2027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6척의 대형 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선박이 현대화돼 연안선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50년 경험, AI로 그리는 기후 대응"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역사서 발간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통제소 50주년을 기념해 홍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역사를 담은 '한국의 홍수통제 50년사' 역사서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역사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홍수통제소가 추진한 주요 성과와 변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홍수통제 50년 ▲분야별 변천사 ▲물재해 현황 및 홍수통제소의 대응 ▲물관리 미래 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1974년에 개소해 전국의 홍수 및 갈수 예방, 수문 조사와 관측, 국가 수자원 관리와 재해 예방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와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관리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번 역사서를 통해 홍수통제소의 사명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민과 물관리 정책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동근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홍수통제소의 50년 역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역사"라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가상모형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송미령 장관 "농업행정 공백 최소화 폭설피해 적극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정 비상상황 속에 농업행정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 이전 소재의 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대설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농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각지에 쏟아진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2015헥타르(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1676ha(시설하우스 937ha, 인삼시설 521ha 등)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송 장관은 경기도와 이천시 관계자 등을 만나 신속한 복구,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 및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국 41개센터, 청년 맞춤형 취업 연결

고용부, '2025 취업드림 콘서트' 개최 AI 면접부터 현직자 멘토링 등 제공 70회 채용행사로 청년 취업 활로 모색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집중 취업·채용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 취업·채용지원 기간 동안 주요 민간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 잡코리아와 협력해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 권역에서 '2025 취업드림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취업 전략 특강, 직무 토크쇼, 일자리 수요데이 채용행사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 전략 특강에서는 수시·경력직 채용 증가, 데이터 기반 채용, 인공지능(AI) 면접 등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에 맞춰 구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법과 면접 전략 등을 다룬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채용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직무 토크쇼에는 CJ제일제당, LG유플러스, 삼성전자, HD현대로보틱스, 크래프트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우

수기업의 현직자가 멘토로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멘토들은 각 기업의 입사 공략법, 조직 문화, 직무 경험 등을 생생하게 전하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들은 취업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만의 입사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 취업·채용지원 기간 동안 전국 41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수요데이를 확대 운영하며,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약 70회의 일자리 수요데이 채용행사가 진행되며, 일자리 으뜸기업과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면접 기회뿐만 아니라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구직자의 취업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기업 채용 전형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AI) 모의면접과 역량검사와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위험성평가 사례로 본 중대재해 예방 방안

고용부, 두 번째 사고백서 발간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현장에서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발간했다. 발간 당시 산업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발간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안전보

가'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위험요인을 알면서도 적시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점을 고려해, 법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이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했는지를 생생하게 담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대환 기자